

칼럼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미래교육 전환, 근본적·실질적 변화로 나아가길

최근 정부는 4차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를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과제(안)은 유·초·중등 교육, 고등·평생교육, 미래교육 기반 구축 등 교육제도 전반에서의 변화를 담고 있다.

현재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 있는 만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우리 교육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동안 적지 않은 교육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과거의 교육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교육개혁을 통해 추구해왔던 학

습자 중심의 교육,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교육현장의 자율성 확대라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교육 실천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였고, 새로운 정책이 교육의 존재 이유와 목적, 역할 등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정책도입 초기에는 교육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로 회귀하거나, 새로운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실행이 과거 교육이 추구하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책의 변화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교육당사자들은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와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회의감

과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새로운 교육정책의 추진이 변화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방법, 평가와 같은 교육 실행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관점, 가정, 가치, 존재 이유 등과 같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교육의 본질은 인공지능 활용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위적인 측면의 변화와 함께 심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심층적인 변화란 우리 사회가 교육에 관한 새로운 관점, 가정, 가치, 신념을 형성·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 학습과 지식에 대한 정의, 학교

문화에 대한 가정, 교육의 역할 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찰은 교육당사자 및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교사공동체, 학부모공동체, 단위학교 등과 같은 집단의 수준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성찰을 통한 심층적인 변화의 경험은 실질적인 교육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미래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간의 역동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전략, 구조, 절차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 교사들의 변화에 대한 동기, 효능감

과 역량, 태도 및 학교장의 리더십, 학교문화 등이 변화를 위해 준비되었는지도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는 있으나 현장에서 정책 실행의 주체인 교사들은 자신이 변화를 실행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부정적 측면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변화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정부는 교사들이 변화를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변화를 위해 노력한 교사와 학교에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했는지, 변화에 필요한 역량개발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쳐 변화에 대한 성공경험(mastery experience)을 축적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원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교육혁신의 노력이 확산되어 실질적인 교육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변화를 추진하고 실행하는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통은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설계 단계에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책실행 단계에서 현장의 변화를 촉진·확산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현재 정부가 정책 구체화를 위해 전문가, 교육당사자, 국민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소통의 노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의 피드백을 정책실행에 반영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새로운 교육정책이 담고 있는 혁신적인 내용 자체보다는 이러한 정책이 교육현장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부와 교육현장, 우리 사회의 노력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인공들 모두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현하며, 스스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더 나은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확철 도로변 농작물 건조작업 안전이 우선
가을 수확철로 접어들면서 도로변에 콩, 찹쌀을 비롯해 한창 수확 중인 벼 탈곡에 농민들의 하루가 바쁜 시절이다.
피땀흘려 가꾼 농산물 수확은 그야말로 농민들의 1년 농사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한해 농사 결실의 기쁨에 앞서 절도 및 교통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도 알아 두었으면 한다.
요즘 농촌에서는 농로나 도로 곳곳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말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변 건조작업의 경우 바로 옆으로 차량들이 썰매 지나치는데 농부들은 바쁜 손놀림에 작업에 몰두하며 교통흐름까지 신경을 쓰지까지 힘들다.
자칫 농작물 건조작업 중 교통사고로 전가될 위험이 많은 상황에 농부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수확한 농산물을 표적으로 삼는 절도범들 또한 이 시기에 출몰하고 있다.
어두운 야간임에도 지켜보는 사립없는 도로변에 농작물을 건조해 두거나 민가와 떨어진 외딴곳에서 수확물을 건조하는 행위는 절도범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범죄조건이기도 하다.
마을 인접한 곳이라고 농로라고 안심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차량왕래가 뜸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일수록 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쁜 농사철이고 농촌지역 여건상 들녘에 인접한 도로상에서 농산물 건조 작업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통행차량에 유의해 고귀한 생명보호에 신경을 쓰길 당부드린다.
더불어 농번기 운행이 잦은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운행에 있어서도 안전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구비하고 운행하는 습관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적재함 뒷면에 야광 반사경과 방향지시등을 부착하는 한편 등화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운행 시 가급적 도로변 가장자리를 주행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고된 농사일속에 마시는 한잔의 반주 후 농기계 운전도 안될일이다.
경찰에서도 농산물 수확철에는 다각적인 절도예방 방범활동을 전개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농민들의 깨어있는 자위방범 의식과 교통사고예방 의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피땀 흘린 1년 농사 결실의 기쁨보다 중요한 것은 농부의 안전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보안과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